



법익 조대 **혜정 스님** 서울 문수사 주지

부처님을 믿는 것은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이지만 의 형상을 따르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해요.

“백년간 쌓은 재물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지만 3일만 수행해도 그 복덕은 100년을 갑니다. 그러나 일념으로 수행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12·13면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조계사를 문화공간으로”

“조계사 일대는 인사동에 비해 활성화 되지 못한 공간이다. 조계사라는 사찰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유동인구가 적어서 그곳에 조계사가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조계사 일대를 활성화시키고 문화적인 가치와 역사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님과 불교학자들의 말이 아니다. 2일(수) 서울 인사동

은 뉘비우스의 띠를 이용한 조계사 설계모형. 안과 밖의 구별이 없는 뉘비우스 띠의 특성을 활용해 주변 건축물들과 경계가 없는 열린 공간을 만들고, 진입을 쉽게 하기 위해 조계사 입구를 램프식으로 개방했다.

또 2층은 작품 전시관, 3층은 의복을 입고 다도를 배울 수 있는 문화 체험관으로 구성했다.



필리 라메르에서 열린 경기대 건축학부 학생들의 작품 전시회 ‘상생(相生)’에서 쏟아져 나온 말이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종립학교 학생도 아닌 어찌보면 불교와 다소 관련이 적은 경기대 학생들이 주최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한국불교 1번지인 조계사에 서부터 그 주변 일대 즉 조계사 사하촌의 도시계획까지 변적이고 현실감각적인 아이디어 100여점이 선보인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눈길을 끈 작품

외국인들을 위해 외국인 전용 전통문화관과 전통속소를 건립한 작품도 있어 조계사가 국제포교의 거점 역할을 재확인 시켰다. 조계사를 3층으로 만들고 1층은 기도 신령공간, 2층은 불자 휴게실, 3층은 불구판매점으로 제작한 다목적 공간으로서의 모형도 등장했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졌지만 그들의 해결안은 메시지는 일반인들에게 불교의 역사, 문화, 예술의 정확한 이해를 전달하고 창조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문화체험공간 확보와 주변 지역과 어울린 개방되고 열린 공간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생들의 아이디어에 공감하고 고마움까지 느끼는 한편 불교계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있으면 한다.

김주일(취재부 기자)

정보격차 해소사업 불교 소외

문화재 관련 제외하면 500여 사업중 단 1건뿐

정책수립때 불교문화 중요성 고려안돼

불교계가 국가의 정보격차해소 등 각종 정보화사업에 소외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망된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인 ‘CYBER KOREA 21’에 따라 실시된 2002년

도 각 분야의 정보화촉진사업을 본지가 조사한 결과 정보격차해소, 지식정보자원관리, 문화정보화 등 10대 국가정보화 분야 500여 사업 가운데 문화재 관련사업을 제외하면

불교관련 사업은 단 한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국가정보화 비전인 제3차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e-KOREA VISION 2006’에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보존이나 이용가치가 있는 불교관련 지식

정보자원에 대한 활용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10대 국가정보화 사업분야 가운데 불교가 가장 소외되어 있는 부분은 정보격차해소 분야다. 대다수 지방 사찰은 정보화의 기본인 통신망 등 정보 기반 시설이 구축되지 않아 인터넷에 접근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역별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소외지역에 통신망 구축비를 지원하고 전국 우체국, 학교, 공공기관 등을 지역정보센터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정보화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정보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컨텐츠 개발 등 지역 정보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찰의

경우 국가 문화재나 성보박물관, 기타 비지정문화재와 무형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 문화 거점의 최적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특히 국립 또는 도립 공원 내에 위치한 대형 사찰의 경우 세계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자원적 측면에서도 공공영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국가차원의 정보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국가에서는 장애인, 농·어·민, 공무원,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 정신적 지도자인 종교인에 대한 교육은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종교인의 사회적 역할을 인식하지 못한채 정보화 소외 계층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처럼 불교가 국가정보화사업에서 소외되는 것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불교의 문화·역사·환경·교육적 중요성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 역사·문화·문화재·종교 등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과 응용이 가능한 불교분야를 좀더 깊이 연구해 중요한 국가 정보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다. ☞ 관련기사 3면

김두식 기자 doob@buddhapa.com



◀북한산 국립공원 파괴행위규탄 범불교도대회에 참가한 스님들이 LG제품 불매 '북한산 수호' '현정부 규탄' 등을 외치며 조계사에서 중요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북한산 도로 백지화 거듭 촉구”

5천여 사부대중 26일 파괴행위 규탄 범불교도대회

LG제품 불매·‘북한산 수호대’ 발족

“북한산 관통도로 백지화하라” 북한산국립공원 파괴행위 규탄 범불교도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성태스님은 6월 26일 조계사에서 5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범불교도대회를 개최하고 현 정부의 북한산 개발정책을 강력히 규탄했다.

법동(조계종 총회의원) 흥파종단원 사무총장스님, 문정현스님의 규탄사,

운산(태고종 총무원장스님)의 운판봉정식, 고은 시인의 ‘북한산 죽이지 말라’ 사남송, 북한산살리기 환경수호대 발족식 등의 순으로 열린 이날 범불교도대회에서는 송추현장에서 비구니스님을 폭력한 LG그룹을 응징하기 위해 LG제품 불매운동을 전개기로 했다.

특히 이날 범불교도대회에서는 회종사 농진스님등 비구니스님 6명이 즉석에서 ‘현 정부 규탄’ ‘수행환경 수호’ ‘북한산 수호’ ‘불교탄압중지’ 등의 현서를 써 부처님 전에 바친

뒤 청와대에 전달했다.

참가불자들은 북한산국립공원 파괴종단 대 정부 촉구문을 발표하고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노선계획 철회, 공사중단 △노선검토위원회 구성 △불교 말살적 개발정책 중단 △수행생활과 환경, 문화적 전통 파괴 중단 △리우환경선언의 지속 가능한 개발정책 적용 △건설교통부 장관 해임등 6개항을 결의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결의대회가 끝난 후 중요까지 거리행진하며 현 정부와 LG그룹의 북한산 파괴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 관련기사 2·23면

김원우 기자 wkim@buddhapa.com

구독 신청 (02)737-0090

조국평화통일불교협, 한국JTS 2개 단체

남북협력기금 8억5천

통일부는 19일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한국JTS 등 10개 민간단체의 11개 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에서 52억9천9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불교계는 총 8억5천 6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통일부는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태)에 금강국수공장 및 생필품 지원사업기금으로 1억6천만원(총사업비 4억6천만원)을 지원한다.

또 한국JTS(이사장 법환)는 농업기술 및 어린이 영양지원사업으로 6억 9천600만원(총사업비 13억9천8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와 올해 초 북한어린이 활동용품 및 급식지원 사업을 전개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우 기자

본사, 해외유수잡지 독점 공급

현대불교신문사가 다음과 같은 해외 유수 잡지와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잡지들은 아시아계 예술분야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 본사는 북미 지역에서 가장 많이 구독되고 있는 불교잡지 Tricycle(트리사이클)을 비롯, 동양미술, 철학 종교 관련 영자책을 수입 공급할 것입니다.

- ▶ Arts of Asia(아트 오브 아시아)
 - ▶ Oriental Art(오리엔탈 아트)
 - ▶ Orientations(오리엔테이션)
 - ▶ Asian Art News from Hong Kong(아시아 아트 뉴스)
 - ▶ World Sculpture News from Hong Kong(월드 스타츨처)
 - ▶ Asian Art Newspaper from London, U.K.(아시아 아트 뉴스페이퍼)
- 이들 잡지 도서에 구입문의는 여시아문(02-732-1512) 또는 인터넷 (www.buddhapa.com/eng)으로 하십시오.

월드컵 특집 **축구와 불교** 6면
월드컵 특집 **히딩크와 육바라밀** 7면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사찰 예절

1. 사찰에 가면 대웅전 등 각 칸막이에 모두 들어가 참배를 하십니까?
① 대웅전에서만 한다 ② 일부 칸막이에서만 한다
③ 모든 칸막이에서 다 한다 ④ 시간 등 형편에 따라 한다
2. 사찰 내에서의 기본예절은 얼마나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 지킨다 ② 비교적 지킨다
③ 잘 안 지킨다 ④ 잘 몰라서 지키지 못한다

설문 참여: 7월 4일까지 buddhane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77호 9면에 실립니다.

우리 곁에 혜성처럼 나타나 영가천도를 1~2초에 원격(遠隔)으로 하고 있는 윤정주씨의 놀라운 체험이야기

우리의 육체에서 만드는 氣(마음에너지)와 영혼과의 관계를 밝힌 책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

저자: 尹丁倣

몸과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한 사람들의 신체(身體)에서 만들어 내는 기(氣: 마음에너지)와 죽은 영혼(靈魂)들과의 영원 불멸의 관계를 밝힌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상사의 크고 작은 심신의 아픔과 온갖 우환들이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죽은 영혼들의 시공(時空)을 초월하는 정보능력에 의한 의식작용에서 비롯된다는 여러 가지 실제 사례들을 실 체험을 통해서 자세하게 밝혀냈다.

이 책은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지금까지 유례없었던 혜성 같은 이야기와 저자의 신비로운 기(氣: 마음에너지)가 가득히 담겨있는 책입니다.

상, 하 각권 값 10,000원

신비한 기(氣: 마음에너지)와 마음의 묘법을 밝힌다

도서출판 슈킴

전화: 02-736-7148, 723-3856
팩스: 02-736-7148

전국 서점에서 판매중!